

“수매약속 해놓고 주문량은 없어”

당귀수입반대대책위, 약속 불이행 대책 촉구

“당귀 수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수급조절위원회는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원도 평창군 당귀재배 농가 중심으로 결성된 당귀 수입반대 대책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입장을 수급조절위원회 앞으로 전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배상에 대한 회신을 촉구했다.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 8월17일 열린 제44차 본회의와 이어 열린 소위원회에서 국산당귀 60톤(10만근) 정도를 600g기준 8천5백원에 수매키로 한바 있다. 이는 8월 당시 국산 당귀값이 600g기준 1만2천원이 넘어도 당귀를 구할 수 없어 수입요청을 해오며 따라 재배농가들은 당귀 수입반대를 위해 당시 시중가인 근당 9천~9천5백원에 못미치는 8천5백원 선에 공급기로 한 것.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안용덕씨(67)는 “그동안 줄기차게 당귀수입을 요청해 오던 소비단체들에서 당귀신청 마감일인 9월12일까지 국산 당귀 주문량이 1kg도 없었다”면서 “무려 4백톤에 가까운 물량 수입을 요청해 왔던 소비단체들에서 저렴하게 공급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근의 주문량도 없었다는 것은 생산농민을 우롱하고 멸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부산식물검역소 통계자료에 의하면 식품원

료로 반입된 수입당귀가 247,146kg(2001년 8월17일 기준)으로 무려 41만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인천세관, 군산세관을 통해 반입된 물량까지를 감안하면 울돌머 식품용 반입 당귀는 약 1백만근을 넘을 것이란 추정이다.

이에 당귀재배 농민들은 “애당초 당귀수입을 요구해온 목적이 결국은 식품용 반입당귀의 합법적인 유통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며 울분을 토했다.

안용덕씨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제12조 ②항 등에 ‘국내 생산 한약재에 대한 계약재배 및 공동수매 등 적극적인 수매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현 수급조절제도는 국내 생산농가 보호기능이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가 본래의 취

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급조절운영규정의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수급조절위측은 “국산 당귀라 할지라도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므로 830원의 제조공정료가 추가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단체들의 신청량이 적어 실질적인 수매협약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건과 관련 생약협회가 질의한 ‘국내산 당귀 직거래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보건복지부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34조에 의해 국내산 당귀는 의약품 도매상, 약국 개설자, 한약업사는 제조업자가 제조한 규격품이거나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단순가공한 한약재를 규정에 적합하게 가공 포장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녹용 등 동물생약 중금속검사 제외

지난달 26일 식약청 고시, 국민건강 위해 우려

의약품당국이 녹용, 우황 등 동물성 생약에 대해 그동안 실시했던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해 자칫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약사법에 근거한 ‘생약 등의

잔류농약·중금속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 고시하면서 별도의 허용기준을 설정할때까지 동물성 생약은 개정된 시험방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따라 이제까지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를 거치던 동물성 생약은 이같은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당기간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게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동물성 생약에 대한 기존의 중금속 등 허용기준은 납, 카드뮴, 수은, 구리, 주석, 안티몬 등 중금속의 유무해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검출된 총 중금속량을 기준으로 30ppm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등 비현실적이라는 여론이 높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험방법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내년중에는 동물성 생약 품목별, 유해중금속별 새로운 허용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재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녹용 등 동물성 생약은 농약 등을 뿌려 재

■ 김동태 신임 농림부장관 프로필

‘주요보직 두루 거친 정통 농업관료’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농림부장관에 김동태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신임 김동태 농림부장관(57)은 지난 1971년 청와대 대통령 특별보좌실 사무관으로 공직에 몸을 담은 이후 줄곧 농림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농업관료이다.

판단력과 기획력이 뛰어나고, 치밀하고 깔끔한 일처리 방식과 과묵한 성격으

로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 부하직원으로부터 신뢰가 두터우며,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림부 유통국장, 축산국장, 농촌진흥청장, 농림부차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역임했으며 농산물 유통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농림부시절 개방화시대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개혁과 첨단 농업기술보급으로 큰 성과를 거두는 등 농정전반에 걸쳐 뛰어난 업무능력을 발휘했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시절에는 농산물 수출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43년 10월25일생, 경북 성주 출신 ▲성주농고, 서울대 농업경제학 ▲부인 오경자 여사(52)와의 사이에 1남1녀 ▲취미 등산

배하는 식물성 생약과는 달리 토양에서 채취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농약성분이 잔류할 가능성이 낮으며 실제로 지금까지 수년간의 검사결과 유해 중금속 검출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한약재 수입 수위국으로 지난해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 호주 등으로 부터 동물성 생약으로 녹용 15만6천140kg(2천323만7천1달러), 우황 838kg(1천109만달러) 등을 수입했다.

대덕벨리 한의학연구원 건립 과학적 체계적 한의학 연구 기대

대덕벨리에 전통한의학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한의학 연구원’이 건립된다.

한의학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의학연구원이 건립되면 특정 질환의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개발 기반이 마련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병희)이 밝힌 ‘한의학연구원 청사 및 한방임상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대덕바이오커뮤니티에 한의학연구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1만5000평 부지에 모두 262억여원을 투입해 오는 200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연구원에는 청사를 비롯, 한방임상센터 및 제반 부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건립되는 이 연구원은 △전래

한의학 및 한방이론 연구·분석 △한의학 발전을 위한 임상·실험 연구 △한의학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연구 △한약재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연구·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특정 질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비롯해 임상연구 및 국민의 특수 한방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 연구원은 한의학의 본산인 한·중 양국의 동양의학협력사업의 공동연구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전통의학 연수를 위한 연구시설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고병희 원장은 “임상 연구기능이 없는 한의학연구는 지금까지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한의학연구원이 건립되면 특정 질환 및 한방신약개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등 한의학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산 한약제품 수입 추진

중 동강시 대외무역공사 독점판매권 획득

북한 의학과학원이 제조한 ‘고려의약품’(한약)이 중국 업체를 통해 남한에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8월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흥룡강신문 최근호(9.5)는 중국 동강시 대외무역공사가 북한산 한약의 국제시장 독점판매권을 획득해 해외수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흥룡강신문은 ‘동강시 대외무역공사가 지난 8월초 북한의 최고 의학연구기관인 의학과학원과 계약을 체결, 이 곳에서 제조한 고려 의약품을 국제시장에서 독

점판매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동강시 대외무역공사가 서울의 다인상사 등과 제휴해 미국,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다인상사는 “지난 8월 말 동강시 대외무역공사와 북한 의학과학원이 제조한 한방추출물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동강시 대외무역공사를 통해 북한산 건강보조음료 <청춘1호>, <장명>, <개성고려인삼복방차> 등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